

“식물성 음악의 힘은 공감”

데뷔 22주년 맞은
싱어송라이터 오소영
“내게 맞는 속도 찾아
계속 노래할 것”



싱어송라이터 오소영

/애프터네츠레코드 제공

“누군가 제 음악을 ‘식물성 음악’이라 하더라고요. ‘동물성 음악’은 무엇일까 싶어 고민도 하고 비슷한 곡을 만들어볼까 싶었는데 스스로 못 견디겠다고요.”

은은한 기타 선율에 맞춰 부르는 담백한 목소리. 특 하고 단진 가사 같지만 그 깊이는 꽤 깊다. 싱어송라이터 오소영(48)에게 음악은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이야기였다.

오소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많이 흔들리고 부딪치고 좌충우돌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음악을 들어주고 좋아해 주는 팬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데뷔한 지 올해로 22년째가 된다.

1994년 제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그는 2001년 첫 솔로 앨범 ‘기억상실’을 발표했다. 이후 ‘어 템포’(a tempo), ‘다정한 위로’, ‘아디로 가나오’ 등의 음반을 선보였다.

싱글, 미니 앨범 등이 쏟아지며 음반 발매 주기가 짧아진 요즘, 그는 천천히 음악적 행보를 이어왔다.

오소영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1회 기념 음반에 실린 조규찬의 ‘무지개’를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아 ‘연젠가는 저 대회에 꼭 나가야지’ 했는데 운 좋게도 입상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지만 당시 경연대회에는 실력 있는 신예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그해 오소영과 같이 동상을 받았다.

오소영은 “대회가 열린던 시기가 가을이라 그에 맞춰 ‘가을에는’ 곡을 썼다. 가사에 ‘난 웃고 살 거야 아이처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지키고 싶은 삶의 태도이자 음악을 향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가 소중히 여긴 이 가사는 지난해 10월 데뷔 20주년을 맞아 열린 콘서트 제목으로도 쓰였다.

곽지용(드럼), 조용원(베이스), 박해민(키보드·코러스), 김수환(색소폰·플루트·리코더) 등 실력파 음악인들이 세션으로 참여한 이 공연은 최근 라이브 음반으로도 발매됐다.

그는 긴 세월 속에 음악을 계속할 수 있

었던 것은 좋은 동료, 그리고 팬들 덕분이었다고 했다.

2001년 첫 음반을 내고 2009년 2집을 내기까지 스스로 ‘암흑기’라 부르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3집을 내기까지는 다시 11년이 걸렸는데 지독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오소영은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서툴렀고 실수도 잦았다”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못 했으니 앞으로는 더 부지런하게 음원을 발표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소영은 자신의 음악이 가진 장점으로서 ‘솔직함’을 꼽았다.

그는 “스스로는 약점이라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언제나 솔직하다”며 “내 음악의 강점은 듣는 사람과 함께 하는 느낌, 즉 공감의 힘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0주년 공연 라이브 2부 앨범과 함께 정규 4집도 발매할 예정이다.

4집은 몇 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너 그의 반려묘 ‘순둥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계획이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을 음악으로 풀어낼 생각이다.

“지난 20년을 음악 용어로 설명하면 ‘라르고’(largo), 즉 느리지만 꾸준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모데라토’(moderato·보통 빠르기), 즉 내게 적당한 속도를 찾아 그 속도를 잃지 않으면 바람이 가장 커요.” /연합뉴스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2주 결방

와이어로 말 쓰러트려
폐지 국민청원 4만명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2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이 2주 연속 결방됐다. ‘태종 이방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13·14회가 결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 예정이던 29일과 30일 방송도 쉬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으나 비판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태종 이방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배우 고소영, 김효진, 공효진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개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현재 문제의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는 KBS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에서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엄마는 아이돌’ 금요일 예능 장악

‘추억과 감성’ 자극 호평
멤버 6명 모두 데뷔 확정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 아이돌들이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며 금요일 예능을 장악했다.

23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주문형 비디오(VOD)를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의 분석 결과, tvN 예능 ‘엄마는 아이돌’의 온라인 클립 영상 누적 재생 수가 지난 18일 기준 1,250만 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요일 예능 중 1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와 MBC TV ‘나 혼자 산다’를 넘어섰다.

시청률 상승세도 돋보인다. 3.8%(이하 닐슨코리아 기준·비상상과 유료가구)의 시청률로 시작했던 ‘엄마는 아이돌’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2%가

지 내려갔으나, 이후 4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일 방송에서는 3.6%까지 시청률을 회복했다.

‘엄마는 아이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돌 가수이지만, 출신과 육아로 한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이들의 재도약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가요계 복귀를 목표로 뭉친 원더걸스 선예, 주원리 박정아, 애프터스쿨 가희, 벨, 베이비복스리브 양은지, 벨라마피아 현주니 등 6명의 멤버는 데뷔 탄탄한 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스타들이 당시의 노래와 춤으로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의 ‘버터’·전소미의 ‘덤덤’ 등 현역 아이돌의 무대를 자신만의 색깔로 재탄생시키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다.

이들은 프로젝트 그룹 데뷔 기준이었던 공식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2만명, 팬클럽 회원 2,000명을 넘어서면서 모두 공식 데뷔를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사람 학대·차별하지 말았으면”

TV조선 드라마 ‘영글’ 아역 이경훈
“지후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씩씩한 아이”

아역배우 이경훈 /TV조선 제공

서럽고 화나는 마음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울음을 터트리거나 때를 쓰지 않는 의젓함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

TV조선 토일드라마 ‘영글’의 아역 배우 이경훈(12)은 어린아이다운 천진난만한 얼굴로 할머니의 학대, 엄마의 알코올중독, 친구들의 괴롭힘 앞에 놓인 민지후 역할을 담담하게 소화하며 ‘연기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만난 이경훈은 민지후 캐릭터에 대해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씩씩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지후는 할머니에게 폭력을 당하다 엄마와 도망친 12살 초등학생이다. 할머니 집에 다시 끌려갈까 봐 두려워 큰 소동을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게 습관이다.

이경훈은 감정을 참는 연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질문에 “한 번씩 살짝 힘들기는 했는데 괜찮았다”며 “내가 학대받는다고 생각하니가 표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런 지후에게 엄마(전혜진 분)와 삼촌(오정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

재다. 이경훈은 “엄마는 지후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존재”라며 “엄마가 술을 마시는 걸 볼 때는 속이 상하고 슬펐는데, 엄마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알코올중독이 된 거니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는 지후와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외에도 소득에 따라 차별을 하는 사회 이면을 들춰내는데, 이경훈은 이런 현실을 꼬집는 내레이션과 대사도 소화했다.

“사람이 떨어지는 것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곳”, ‘부자집 도련님 반대말이 부도덕은 아니잖아요’ 등 어린이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을 잘 소화해 진정성 있게 전달했

다는 평을 받는다. ‘영글’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아이들 학대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고 큰 소리로 답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1월 24일 (음력 12월 22일)		
<p> 48년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60년생 만신수가 있으니 과음하지 말라. 72년생 몸은 고달프지만 보람은 있겠다. 84년생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p>	<p> 49년생 운기가 상승하니 때를 기다려라. 61년생 대결보다는 협상이 유리하다. 73년생 좋은 사람과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 85년생 꼬여 있던 일이 술술 풀린다.</p>	<p> 50년생 우환이 생기겠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62년생 유언비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74년생 좀 더 참고 인내하라. 86년생 갇힌 불도 다시보자.</p>	<p> 51년생 분수를 지키면 막힘이 없다. 63년생 실금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75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87년생 준비된 자만이 찾아온 기회를 잡는다.</p>		
<p> 52년생 습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64년생 좋은 일을 하고도 뽐 뽐말을 두렵다. 76년생 귀찮은 자가 찾아오니 시끄럽겠다. 88년생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다.</p>	<p> 41년생 정말 운세 좋은 날이다. 53년생 번잡한 일은 해소되고 승승장구한다. 65년생 기대와 다른 결과가 실망스럽다. 77년생 현상 유지하면 성공이다.</p>	<p> 42년생 만사형통하는 좋은 날이다. 54년생 옷은 얼굴에 침 못 뱉는다. 66년생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한다. 78년생 고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라.</p>	<p> 43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55년생 큰 손해가 아니라면 양보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라. 79년생 배신수가 있다.</p>		
<p> 44년생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다. 56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볼 수 있다. 68년생 큰 어려움은 해소되나 여전히 힘들다. 80년생 힘들면 쉬어야 한다.</p>	<p> 45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자를 조심하라. 57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69년생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 81년생 자신의 실력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p>	<p> 46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58년생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말라. 70년생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다. 82년생 직장에서 구설수에 휘말린다.</p>	<p> 47년생 외출을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라. 59년생 식복이 터졌으니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71년생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 83년생 친구들과 다툼이 있겠다.</p>		